광주시립미술관이 국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현지에 오픈한 북경 창작센터 입주작가들이 국제 화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창작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중국 미술 전문가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들

세계 화단 무한질주

지난해 12월 중국 북경에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 입주한 지역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로 급성장하고 있다.

창작센터 입주 작가들은 유명 갤러리 현지 경매회사로부터 잇따라 러브콜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작가들의 창작지원을 위해 외국에 스튜디오를 낸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들 입주 작가들의 활약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3일 "최근 창작센터 입주작가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선보인 전시 '북경질주 180일'(6월 4일~13일)에 대한 중국 화단의 찬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유명 갤러리 등서 잇단 러브콜

2기 작가들 12월21일까지 입주

이 전시에는 제1기 입주작가인 김해성(48), 전현숙(46), 조강현(45), 김진화(40)·김일근(39)씨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100여명의 중국 미술 전문가들이 다녀갔다.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 화단에는 다소 생소한 광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유심히 살펴보며, 유명 미술 경매에 초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일근씨가 상하이 호산 경매 참여하며, 김해성씨는 중국의 한 갤러리로부터 개인전을 요청받았다.

또 김진화씨의 춤품작은 세계적인 화랑인 독일 슐츠갤러리에 판매됐으며, 오는 7월 출간 예정인 중국 현지 미술 전문지 '예술가 작업실'에 김해성·조강현씨의 작품이 소개된다.

앞서 지난 5월 열렸던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전에도 우창지앙 중국미협 부주임, 환띠안 중국미술관장, 양싸오양 국가화원장, 왕밍밍 북경화원장, 티엔리밍 중국예술연구원 부원장, 리양 중앙미술대학, 추이씨량북경어언대학 총장 등 중국 미술계 거목들이 대거 방문했다.

북경창작센터 내부.

이처럼 광주지역 작가들이 주목받게 된 것은 창작센터의 역할이 크다. 작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기획자나 평론가, 화랑관계자와 함께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어 중국 화단에 광주 작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베이징의 미술 중심지인 따산쯔 환티에 창작예술지구 한복판에 창작센터가 위치해 있어 미술 전문가와 컬렉터들에게 작품이 노출되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도 작가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박지택 관장은 "중국은 수많은 작가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라서 광주 작가들이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면서 "더욱 많은 작가들이 마음껏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12월21일까지 북경창작센터에 입주하게 될 2기 작가는 박수만(서양화), 기영숙(한국화), 김광철(서양화), 최요안(서양화), 김영태(사진)씨가 뽑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리에 취하고… 장단에 들썩이고…

소리꾼 안숙선·사물놀이 원조 김덕수

내일 오후 광주문예회관서 한판 난장

'소리에 취하고, 흥겨운 장단에 들썩이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소리꾼 안숙선과 사물놀이의 원조 김덕수가 흥겨운 한판 난장 '공감'을 마련한다.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공연은 광주문예회관이 기획 공연으로 준비한 작품이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관객들의 복을 비는 문굿과 비나리로 시작되는 이번 공연은 안숙선과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삼도 설장고, 삼도 농악가락, 판놀음 등 신명난 무대가 이어지며 안숙선의 판소리가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가장 역동적인 무대는 판굿이다. 장구·북·징·장구가 어우러진 사물놀이에 상모 돌리기, 무용단의 소고춤 등 다양한 볼거리가 관객들을 신명난 세계로 안내한다.

피날레 무대는 전 출연진이 함께 부르는 '농부가'가 장식한다.

중요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기능 보유자인 안숙선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 사물놀이의 산증인 김덕수 역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재즈, 클래식 등 현대음악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두 사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주최로 오는 8월 20~22일 광주 금남로 등지에서 열리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에도 참가, 월드 뮤직 뮤지션들과 색다른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62-510-92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에도 온가족 즐기는 '문화상품' 나왔다

어린이합창단 'Wish to fly' 공연 전석 매진

풍성한 볼거리 파격적인 무대 관객들 열광

광주에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용 문화 상품'이 탄생했다.

22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 공연 'Wish to fly'는 무엇보다 기존 공연과는 다른 '파격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신임 이어진 단장의 데뷔 무대였던 이번 공연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으로는 유례가 없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입석 관객까지 불러 들이며 대성황을 이뤘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합창 공연을 오감이 만족하는 종합무대로 꾸며낸 건 광주평화방송어린이합창단을 이끌고 세계합창올림픽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이 단장과 현대무용가 박진수, 음악인 김성광씨의 공이 컸다.

작품은 '꿈'을 주제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펼쳐졌다. '거위의 꿈', 기쁨의 노래', '하느님의 어린 양', 'Fly to the moon' 등 50여명의 단원들이 선보인 14곡의 노래는 주제를 잘 표현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영상과 소품들을 활용한 무대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타악기 등 라이브 세션으로 반주를 한 점은 현장감을 높이고 의미있었지만 음향 밸런스가 맞지 않아 합창단의 목소리가 묻힌 점은 아쉬웠다. 또 무용수들의 등장 부분도 좀 더 압축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어린이합창단은 1년에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각각 2차례씩 공연을 갖는다. 이번 대극장 무대를 위해 합창단은 예산을 집중시켰다.

이번 작품은 수많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문화상품'으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어린이합창단의 다음 공연은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다. 50명의 아름다운 소년·소녀들이 광주시민들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줄지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폭에 담은 여성의 정체성

'Creation and Extinction'

채색화가 김진희 개인전

30일까지 무등갤러리

채색화가 김진희씨가 24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무등갤러리 지원작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모성 등 여성의 정체성을 탐구해온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도 'Silent Mountain', 'Woman','Life and Death' 등의 작품을 통해 여성성의 다양한 형태를 선보인다.

파랑·녹색 등 단색조의 색감이 두드러진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바탕에 검정색을 깔고 대상의 구체적 형상을 구사하면서 여성의 극명한 자아를 드러낸다.

'Silent Mountain'에서는 수면 아래의 자의식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고, 'Woman'에서는 정체성을 찾기 위한 세상으로의 몰입 여정을 제시한다.

또 'Life and Death'는 초록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 뒤에서 세상 안으로 걸어 나오는 여성을 통해 자유로워진 영혼을 갈구하고 있다.

전남대 예술대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김씨는 황토회 회원전, 身의풀이전, 네오아트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황토회, 어등 예술문화원, 전통과 형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